

발행일 : 2012년 1월 18일 (매월 1회 WEB 발행)

새해가 밝았습니다. 후쿠시마현은 작년과 같이 올해도 복구와 부흥을 향해 전진해 가겠습니다. 후쿠시마의 지금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. 이 정보지의 영어, 중국어, 한국어, 포르투갈어, 타갈로그어, 프랑스어판은 당 협회 HP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
【(재) 자치체국제화협회 조성사업】

후쿠시마의 풍경



아나와시로코 호수
(고오리야마시 2011.12.29 촬영)

반다이산이 눈으로 아름답게 덮혀 주변의 스키장도 사람들로 북적이고, 북쪽 나라에서 찾아온 손님 백조도 아나와시로코 호수를 찾았습니다. 평상시와 다름없는 이 풍경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입니다.



하쓰모우테(初詣, 신년 첫 참배)
(후쿠시마시 2012.1.1 촬영)

신년 첫 참배를 하려는 많은 시민들이 이나리신사에 모였습니다. 신사로 향하는 양 길가에는 행운을 빌기 위한 물건인 다루마와 감주(甘酒), 붕어빵을 파는 노점들도 늘어서 풍성한 새해 분위기에 화려함을 더했습니다.



성인식 (후쿠시마시 2012.1.8 촬영)

후쿠시마시 민체육대회기념체육관에서 스무살 성인이 된 약 2300 명이 출석한 가운데 “성인식”이 거행되었습니다. 회장 밖에서는 기모노와 양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서로 반가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.

후쿠시마의 목소리

하세가와 이사코 (고오리야마시 여성)

지진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파라과이에 살고 있었습니다. 텔레비전으로 지진이 일어난 것을 알고 “큰일이 일어났다. 후쿠시마는 솔직히 더 이상 가망이 없다”고 생각했습니다. 8월에 남편의 일이 끝나 2년 만에 고오리야마로 돌아왔습니다. 남겨둔 집은 다행히도 거의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방사능이 걱정이 되어 정원과 집 외벽 등을 제염하였습니다. 지금도 여전히 해외에 살고 있는 많은 친구들로부터 “괜찮아?” “걱정하고 있어”라는 메일이 옵니다. 사람은 비록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움과 증오심도 가지지만 역시 마음은 따뜻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가족들과 건강하게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보내고 있는 기쁨을 현 외의 지역과 해외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.

로페스 켄 (후쿠시마시 필리핀국적 남성)

저에게는 아내와 1살, 5살, 7살 된 자녀가 있습니다. 지진발생 당시에는 물도 가스도 중단되었고 방사능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기 때문에 16 일에는 동경으로 피난하였고, 그 후에 필리핀으로 피난하였습니다. 일 때문에 아이들 3 명을 필리핀 집에 맡기고 아내와 저만 5 월에 후쿠시마로 돌아왔습니다. 지금은 스카이프 등으로 아이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만, 같이 있지 못해서 정말 적절합니다. 아이들 비자문제도 있기 때문에 3 월에는 아이들을 한번 불러들일 예정이지만, 방사능이 걱정됩니다. 밖에서 놀게 할 수 있을지, 먹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, 불러온다고 해도 얼마나 있을 수 있을지 너무나 불안합니다.

사사키 가즈히코 (스카가와시 남성)

스카가와시는 인구가 약 8 만명이지만, 12 월에는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약 2000 명이 줄었습니다. 역시 방사능의 영향일까요? 주변을 둘러봐도 특히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이동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자원봉사로 외국인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교실에 다니던 카자흐스탄출신의 부모와 자녀가 지진 후에 동경으로 이주하였습니다. 저는 나이도 나이인지라 별로 신경은 안 쓰지만 역시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후쿠시마에서 나는 것은 되도록 안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해외 여러분들께는 일단 후쿠시마에 오셔서 현재의 후쿠시마의 실상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.

서 경미 (이와키시 미국국적 여성)

지진으로 집 전체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얼마간 피난소와 친구 집에서 신세를 졌습니다. 남편은 당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바로 돌아와 가족 모두가 모일 수 있었던 것은 18 일이었습니다. 바로 단독주택을 빌려서 살기 시작했지만 지금도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. 남편은 가고시마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여름에는 가고시마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. 지진이 발생한지 벌써 10 개월. 매일같이 “복구, 부흥” “방사능” “제염”과 같은 말이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긴장감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지만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지칩니다. 제 마음의 “복구, 부흥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.